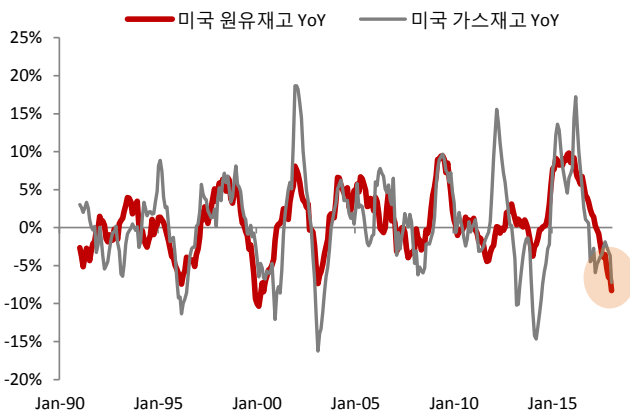


미국 원유/가스 수출 급증에 대한 단상

▶ 사상최대 생산이 연일 경신되면서도 재고는 하락하는 미국. 원인은 트럼프의 셰일 정책으로 급증하는 수출 때문임. 올해는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되면서 유가 강세지만, 연말 이후에는 이런 fundamental 재고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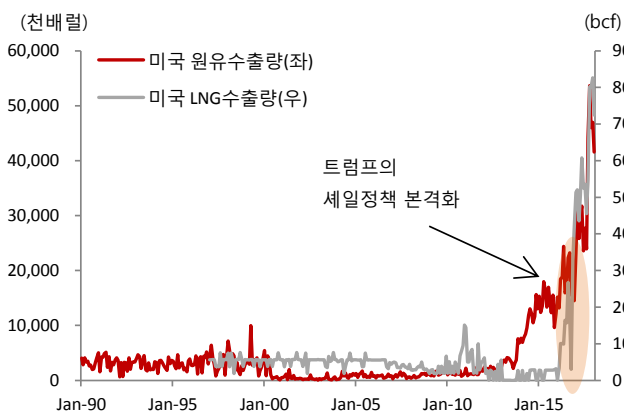
사상최대 생산이 연일 경신되면서도 재고는 하락하는 미국



자료 : EIA, SK증권

- 올 해 들어서 사상 처음으로 1,000만b/d를 넘어선 미국 산유량. 가스도 역시 사상 최대인 3,000bcf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요
-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“재고도 동반급증?”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, 현실은 정 반대입니다. 원유와 가스의 전년대비 재고는 똑같이 -10% 정도로 하락했습니다.
- 이러한 양상이 최근에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.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부임한 이후 2017년부터는 생산량이 늘면서 동시에 재고는 빠지는 흥미로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
- 원인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 “수출”에 있습니다

원인은 트럼프의 셰일 정책으로 급증하는 수출 때문임



자료 : EIA, SK증권

- 2017년부터 미국의 원유와 가스 수출은 전례 없을 정도로 급등을 했습니다.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“셰일 정책”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물이죠. 자세한 내용은 4/2 발간된 CBR 8: “트럼프發 무역전쟁의 숨겨진 노림수”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
- 여하튼 트럼프의 이 정책으로 셰일 업체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으니,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것이 이해될 만도 합니다. 앞으로도 이 정책은 유효할 것입니다
- 다만 잘 생각해볼 부분이, 최근 미국 원유재고 하락이 유가에 호재로 작용하는데, 호재 맞나요? 엄청난 물량이 드디어 외부로 뿜어져 나오니 오히려 공급과잉 요인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?
- 올 해는 누차 말씀 드리듯이 지정학적 요인으로 유가 강세가 이어질 것입니다. 다만 연말 아랍코 IPO와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되고 fundamental을 돌아보게 된다면 이런 요인들은 분명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. 장기 저유가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

•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•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•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 •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 •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 이상 → 매수 / -15% ~ -15% → 중립 / -15% 미만 → 매도

